

검찰 '과태료 대납' 관련 강 대표 사무실 압수수색

내분 가라앉기도 전에... 한나라 당혹

한나라당은 3일 강제집 대표의 지역 구인 대구 서구의 '선거법위반 과태료 대납' 사건과 관련, 검찰이 강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현재 야당 대표의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부터 이례적인데 당 내분이 체 정리되지 않은 민감한 시기에 검찰이 '액션'을 취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한나라당이 '돈 공천' 등 잇단 부패사건으로 4·25 재보선에 참패한 뒤 강 대표가 당 쇄신을 제시하고 '지도부 책임론'을 정면돌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강 대표의 이름이 다시 오르내리는 것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의협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정형근 최고위원 마저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내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황우여 사무총장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 검찰이 신중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내심 불쾌해 하면서도 검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대신 이번 사건이 강 대표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기획 수사'나 '야당 탄압' 등의 의혹을 제기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인상만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핵심 당직자는 "지급처벌 중요한 시기에 사건과 관계없는 대표 이름이 검찰에 오르내리는 것은 부패 척결 노력에

“용의자 사무국장 사무실 수색” 의미 축소 “의혹 부풀리기 수사편 좌시 않을 것” 반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졌다고는 보지 않는다. 의혹을 빨리 해소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강 대표는 이미 쇄신을 발표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면서 "검찰은 철저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진 서구청장이 자신이 과태료를 대납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야당대표 관련설 운운하며 야당대표 흡입되거나 의혹 부풀리기 수사로 일관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나라당은 압수수색이 이뤄진 장소가 강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이지만 용의자인 강 대표 사무국장이 '일하는 곳'을 법적 절차에 따라 수색한 것뿐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 애썼다. 또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실제로는 영장 집행 이전에 모든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박 비서실장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모든 자료를 임의 제출했고 이날 검찰은 법적으로 사무국장의 사무실을 수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3일 오전 한나라당 영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최근 당직자들의 줄 사퇴로 빈자리가 많아 썰렁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선 룰, 민심-당심 5대5 규정 지켜야”

이재오 “이 前시장 ‘큰 그릇론’ 설득 사퇴 소신 접어”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이 3일 사퇴 결심을 굳히고 꺾기까지의 심정과 관련, “한나라당이 이대로는 집권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다”면서 “내가 사퇴를 하자고 했던 것도 재보선 참패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당과 후보, 원로들의 잇단 만류로 불가피하게 사퇴소신을 접게 됐다”면서 “당의 대선승리를 위해서라

면 내가 하나의 밑알이 돼 철저히 썩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특히 이 전 시장이 큰 그릇은 깨끗한 물 더러운 물 가리지 않고 모두 담아야 하다는 이른바 ‘큰 그릇론’과 ‘희생론’으로 자신을 설득, 고심 끝에 사퇴 소신을 접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최고위원은 이날 대선후보 ‘경선 룰’ 논란과 관련, 민심과 당심의 ‘5대5 규정’을 엄정히 준수할 것을 강

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이번 4·25 재보선은 민심의 심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 만큼 당의 대선승리를 위해서는 경선에 민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밖 제3세력까지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 민경선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

다면 최소한 민심과 당심을 반반씩 반영하는 규정만이라도 지켜야 하며, 그게 바로 당이 대선승리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 전 시장이 대중적 차원에서 갈등을 수습하고 당 화합의 길을 택한 만큼 강제집 대표도 당연히 이런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전 시장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는 것은 무리지만 그 정신을 살려 민심과 당심을 5대 5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여론조사 반영비율 문제에 있어 절대 양보할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으로, 강제집 대표에 대한 공개 압박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3일 광주를 방문한 민주당 박상천 대표(앞줄 오른쪽 두번째)가 무안·신안 보궐선거에 당선된 김홍업 의원(앞줄 왼쪽) 등 주요 당직자와 함께 국립 5·18묘지를 찾아 참배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월 빅뱅...대통합 물꼬 틀까

11일 김홍업 축하 민주·우리·통합신당 의원들 회동

정치권에서 '5월 빅뱅설'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일 민주당, 열린우리당, 중도통합신당모임 의원들이 김홍업 의원의 당선 축하를 겸해 회동을 갖고 대통합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박상천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독자교섭단체 구성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며 범여권과의 '제3지대 통합론'을 제기하고 있어 당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3일 민주당 모 의원은 “오는 11일 김홍업 의원의 당선 축하를 겸해 민주당, 열린우리당, 통합신당모임 소속 의원들이 회동을 갖고 대통합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미 민주당 의원들이 회동을 갖고 박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독자적 교섭단체 구성 방안에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을 함께 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합 방안의 하나로 '제3지대 통합론'의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오는 25일께 열린우리당 의원 20~30명이 탈당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중도통합신당 의원들이 제3지대에서 통합신당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주말 순화규 전 경기지사 캠프 관

계자들과 범여권 대통합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무모하게 제3지대 통합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시기상으로나 방법상으로 적절치 않다”며 “박상천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독자적 교섭단체 구성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박 대표는 독자적 교섭단체 구성 방안과 병행해 범여권 인사들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통합신당 창당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15일께면 박 대표가 그러는 그림의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회동에서 범여권 인사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합과 관련,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DJ의 차남인 김홍업 의원이 이날 회동에서 대통합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도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 김홍업 의원이 민주당과 범여권의 대통합에서 매개 역할을 하면서 범여권 대통합이 급류를 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물밑에서 진행되던 박 대표와 의원들과의 불협화음이 수면 위로 부상함에 따라 민주당의 갈등은 대선 정국에 새 변수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상천 대표 “순화규 前지사 훌륭한 분”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3일 범여권 대선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 순화규 전 경기지사에 대해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취임 한 달을 맞아 이날 광주를 방문한 박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순 전 지사가 국회의원 생활할 때 우수한 국회의원 중 한 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또 “대표 취임 후 순 전 지사와 접촉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대선후보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사람이 특정 대선후보를 점찍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에 정운찬 전 서

울대 총장도 접촉하지 않았지만 예외는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통합논의와 관련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이념적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두당이 합치는 것은 잡탕정당이 될 수 있고, 민주당이 12월 대선에서 국정 실수에 대한 심판을 받는 정당인 만큼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23인 그룹과 통합은 동질성과 동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중단하고 다른 중도개혁세력과 통합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IMPERIAL 세정아울렛 2층 임페리얼 [광주상무점] **OPEN**

EVENT

봄·여름 신상품 30~50% SALE (일부품목제외)



햇살이 더욱 새롭게 느껴지는 계절. 하이브리드 캐주얼 임페리얼이 자신의 삶과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삶의 맛을 즐기는 당신에게 감성 만족의 브랜드 자부심을 누릴 수 있는 이름, 임페리얼 그 주인공의 고객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구매고객님께 사은품 증정 | 매장위치: 광주 세정아울렛 2F(엘리베이터 앞 에스컬레이터) T.062)384-8800